

종합

# 민주 전대 '1인 2표제' 짝짓기 관심

## 정세균-최재성, 손학규-박주선, 정동영-천정배 연대 거론

### '빅' 오차범위 내 박빙 대혼전 ... 신경전 가열

민주당 10·3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세균·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상임고문 등 이른바 '빅3' 측이 서로 우세를 주장하는 등 대혼전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8일간 후보들은 가장 대의원 수가 많은 수도권과 약세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후보간 연대를 통해 승기를 확고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간 각 캠프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손 후보 측은 '손학규-정동영', 정동영 후보 측은 '정동영-손학규', 정세균 후보 측은 '정세균-손학규-정동영'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저마다 1위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세균 후보는 지역위

원장 최다 확보 등 상층 조직, 손 후보는 일반국민 및 당원 여론, 정동영 후보는 조직동원 능력 면에서 각각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현재 상당수 대의원 여론조사상 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의원 응답률이 낮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숨은 표'의 향배를 놓고 신경전이 뜨겁다.

정세균 후보 측은 24일 "정동영 후보 측은 이미 조직을 풀가동, 여론조사에 거품이 있는 반면 우리 측은 별도로 '오더'를 내리지 않아 숨은 표가 많다"고 주장한 반면, 정동영 후보 측은 "지역위원장들 가장 많이 확보한 정세균 후보 측이 숨은 표가 많다는 것은 어

불설'이라고 받아쳤다.

손 후보 측은 "이미 손학규 대세론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변이 있을 수 없다"고 필승을 자신했다.

대의원 여론조사에서 월등한 1위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본선 점수의 30%를 차지하는 당원 여론조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의원 투표 1~2%포인트 차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손 후보 측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1인2표 방식의 투표에서 후보간 짝짓기 흐름도 관심거리다.

정세균 후보와 정 후보의 직계인 486의 최재성, 수도권 출신의 손학규-호남 출신의 박주선, 비주류 그룹의 정동영-천정배 후보간 연대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계파별 이해관계가 뒤엉키면서 실제 합종연횡 양상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486 단 일후보 자격으로 나선 이인영 후보는 탈계파를 자임, 각 계파로부터 고른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27일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의 피날레인 서울과 인천, 경기 대회전과 이달말~내주초 두 차례의 공중파 TV 토론이 남아 있어 각 후보들은 표밭 점검과 함께 메시지 가다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호남을 다녀온 수도권 및 영남의 민주당 대의원의 표심이 어떻게 변했느냐와 남은 기간 각 캠프의 호남 담당자들이 수도권 지원에 나섰을 경우 영향력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시설

## 여수엑스포, '상하이' 반면교사 삼아야

〈反面教師〉

지난 5월1일 개막한 중국 상하이엑스포가 폐막일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상하이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한 등록박람회일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는 중국이 처음으로 개최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더욱이 여수와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상하이엑스포는 '지구촌 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집안 잔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다녀간 5500만 명의 관람객 가운데 80~90%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박람회장엔 관광안내소에서조차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13억 중국인들만의 잔치'라는 말도 나올 만 하다.

또한 전시관의 콘텐츠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고만고만한 관람객의 시선을 잡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람객 사이에서는 입장료(평일·2만 7000원)에 비해 볼거리가 충분치 않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다. 특히 입장객에 대한 배려에 소홀해 평범한 전시장에 들어가는 데도 1~2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사라고 한다.

정부와 여수시, 여수엑스포 조직위는 상하이엑스포를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여수엑스포는 상하이엑스포와는 달리 인종 박람회로 기간도 짧고 주제도 한정돼 있다.

치밀한 준비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을 최고 수준의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람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람객 배려에 대한 치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수엑스포도 '집안 잔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하이엑스포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 금호타이어 노조 지금이 파업 운운할 때가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 4월 전임 노조와 회사 측이 합의한 '임금 5% 및 상여금 200% 반납' 등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했다고 한다.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조가 강경 노선을 걷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현 노조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탄핵하고 힘겨루기를 해오다 최근 전임 집행부가 총사퇴하자 노조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으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쟁의행위 의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법은 최근 노조가 추진한 '대의원 선거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린데 이어 전임 집행부에 대한 탄핵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결을 해 쟁의행위를 결의한 대의원의 지위와 정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다. 따라서 회

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관망하던 중도와 노조원들이 직무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내는 등 노-사, 노-노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장기간에 걸친 노사간의 갈등으로 법정관리의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가쓰노 타케다 회장이 마련해 겨우 '숨통'이 트인 상태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회사와 280여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연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노조 행위에 대해 일체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회사와 임직원, 지역사회 모두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조가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의 길로 들어서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 지방의원 초청 설명회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광주와 나주에서 호남권 지방의원을 초청해 '지역발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성과와 호남 광역경제발전의 발전방향 등을 소개한다. 또 지역정책에 대한 지방회의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29일에는 광주시 라마다호텔에서 호남권 시·도의원 131명을 초청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첨단)부품소재 등 호남권 선도산업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 달 5일에는 나주 흥중골드스파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초의원 338명을 초청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토의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을 비롯해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다.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광주와 전남·북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현재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사편찬위원회장에 이태진 교수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직 차관급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이태진(67)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인문대학장과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역사학회장 등을 거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어록전' 개막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어록전' 광주전이 24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광주일보와 김대중평화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 본사 유재철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내외빈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고(故)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내년 예산의 2%도 안돼" "2~3조면 흥수 완벽 예방"

### 김무성-박지원 '4대강 예산' 놓고 설전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YTN '뉴스 오늘'에 동반 출연,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퍼부어지고 있다"며 "국가재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4대강 예산만 조정되면 해결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70~80%, 시민사회단체와 4개 종교계가 반대하는 보와 준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이 3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가운데 4대강 예산은 7조원이 안 된다. 2%가 안 된다"며 "4대강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추석 연휴기간 서울 지역 수해를 언급하며 "저수 또는 하수배수관 시설이 없어 물폭탄을 맞았다. 2~3조원만 투입되면 서민들의 물폭탄, 흥수 피해는 없어질 것"이라며 거듭 4대강 예산의 조정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시설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부족했던 것"이라며 "그런 예산을 다 들고도 4대강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전락 전방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의 요구는 다 (수용)하도록 하겠다. 여당은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양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에 좀 더 성의를 보여달라. 민생방안이 잘 통과돼 국민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2차례의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된 본인만큼 있는 그대로 질문하고,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여당이 앞서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매섭게 하는 게 양당의 책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황식 "청문회서 의혹 명백히 해명될 것"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증여세 탈루 논란 등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과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히 가려서 의혹이 그야말로 의혹에 그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통일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며칠만 지켜보면 모든 것들이 명백히 해명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제가 그렇게 의혹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공직 생활을 해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간 지켜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명되리라 믿고 여기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윤당치 않다"며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추석 연휴인 전날 출근, 밤늦게까지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어 이날은 저출산 등 복지 분야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휴일인 25일에도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 외교·안보 분야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2012년 서민용 공공아파트 공급 부족"

### LH 올 착공 작년의 14.5%

주택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2012년에는 서민주택으로 분류되는 공공아파트가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 LH의 주택 착공물량은 8468가구가 지난해의 5만8211가구 대비 14.5% 수준에 그쳤다.

LH는 현재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중이고 분양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착공물량을 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1만638가구가었던 LH의 주택착공물량은 2008년 6만448가구로 감소했고, 2009년에는 2007년의 절반 수준인 5만8211가구, 올해는 10분의 1수준에도 못미치는 8468가구로 줄었다.

실제 LH아파트의 예상 준공 물량은 2010년 9만269가구에서 2011년 8만3300가구, 2012년은 절반 수준인 4만1704가구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종두

공정하게 너무 없어서 큰 일...

**'한일해협권 영화제' 내달 2일 제주서 열린다**

**전남 등 8개 시·도·현 공동**

전남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해협 연안에 있는 8개 시·도·현이 공동으로 기획한 '한일해협권 영화제(2010 Korea & Japan Strait Area in Jeju)'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제주영삼미디어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제주와 부산, 전남, 경남과 일본의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등 8개 시·도·현이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일 오후 7시 제주영삼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웃는 대천사, 웃는 미카엘'(일본, 오다 이세이)리란 개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상영부문에 8개 시·도·현이 추천한 영화와 이들 지역을 무대로 하거나 로케이션 촬영한 영화, 이들 지역 출신 감독의 영화 등 14편이 상영된다.

경쟁부문에 '자위전쟁(한국, 김유리 감독)' 등 창작영화 총 15편이 출품됐다.

3일에는 '커피골'과 '여행'을 각각 연출한 사사베 키요시 감독과 배창호 감독을 만날 수 있는 '감독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한일 해협 시·도·현 지사들은 2008년 제주에 모여 일본 사가현과 제주도에서 한일해협권 영화제를 순번제로 열기로 합의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광)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교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국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